

# 서머셋 모옴의 '소설 읽기'

## 「세계 10大 小説과 作家들」의 觀點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 ‘읽기 목록’ 추천의 어려움

“동일한 인간이 18세 때 좋아하던 책과 48세가 되어 좋아하는 책이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내가 어떤 종류와 구분을 삼가는 이유는 중년에 다른 내가 중년의 취미를 젊은 독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5세 이전에 가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45세가 되어도 여전히 읽을 수 있고 노경에 들어가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또다른 책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리얼리즘, 낭만주의, 눈에 보이는대로의 인간, 상상되거나 劇化되는 인간, 존재할 리 없는 인간...”

이 글은 20세기 전반을 대표했던 세계적 시인 에즈라 파운드의 문학서 읽기 태도론의 한 줄이다. 필자는 늘 이 견해의 명석함을 기억해 오고 있다.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의 방식으로서 책읽기를 권하고, 또 그 책읽기 중에서도 가장 수월한 접근분야로서 문학서 읽기를 권할 때 우리가 거의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나이먹음을 열외로 한 책 목록의 추천이다.

말은 추천이지만, 우리네 풍습으로서는 하나의 강요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기 도서목록의 추천에 있어서 우리는 부모들의 그 알량한 讀書歷의 수준에서 책을 고르게 마련이다. 또 학교교육에서는 같은 수준의 교사의 선택에 의해서 讀後感, 써내기의 목록들이 제시된다. 그리고 출판사의 간헐 태도 역시 그 관련자들의 빈약한 讀書力(또는 전혀 읽은 일도 없는 독서의 虛力)의 범위내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文學書읽기는 실은 누구의 기준도 아니며 어떠한 기준이기도 어려운 기준에서 문화의 형성에 참여해 왔다.

때문에 이번엔 소개하고자 하는 서머셋 모옴의 소설목록은, 그 소설목록 자체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문학서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읽기태도의 修正의 案內로서 거론을 하려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목록 그 자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읽기 지루하면 띄엄띄엄 건너뛰라”

서머셋 모옴은 무엇보다 소설읽기에 있어서도 그 어느 한권을 차근차근히 읽을 필요조

차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실은 오래도록 규정돼온 일반적 상식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독서의 이론적 대가 모티머 애들러나 찰스 밴 도런의 정평 있는 논리에서도 소설 읽기는 “교양서는 부분을 끌어내어도 독립된 것으로서 읽을 수 있지만 문학은 그렇지 않다. 소설의 章, 회곡의 幕을 전체의 순서에서 빼내면 그 의미를 이루지 못한다.”로부터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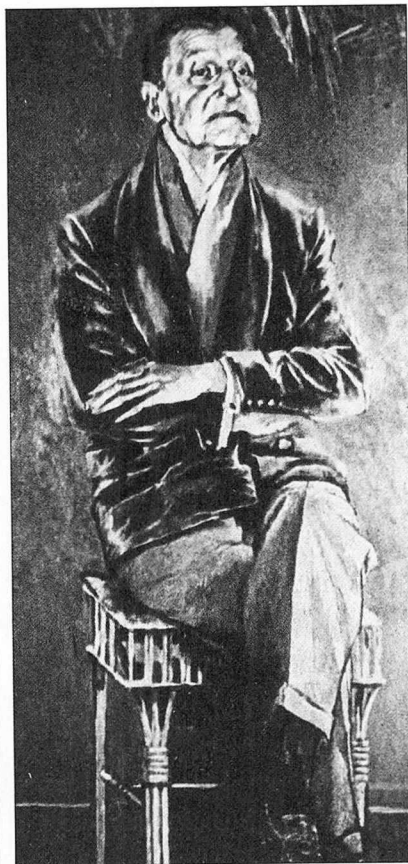
“등장인물, 사건, 에피소드, 등장인물의 사상·대화·감정·행동 따위가 작품의 요소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요소들은 “전체적인 장면 혹은 배경에 의해서 서로 맺어지고 돋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는 이 상상의 세계에 같이 있는 정든 사람의 하나로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住民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애들러의 소견이고 또 그의 말은 옳은 말의 정형이다.

그러나 서머셋 모옴은 “문학작품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별로 비난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더 대담하게 이런 조건들을 뒤엎는다.

“상연된 劇 중에서 연습 때 다소간에 마음 놓고 삭제했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 작품이란 거의 없다.

나는 어느날 버너드 쇼와 점심을 먹을 때 그의 이런 말을 들었다. <나의 연극은 영국에서 보다 독일에서 더 좋은 평을 듣는다. 그 이유는 아마도 독일사람들의 머리가 더 좋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그의 말은 틀린 말이다. 그는 영국에서는 공연을 할 때 희곡작품에 단 한자도 손뼉이 없이 무대화하는 것이 전통이고 독일에서는 연출가들이 마음대로 작품에 손을 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은 군더더기 대사를 사정없이 삭제하고 오직 관객이 가장 잘 즐길 수 있게 새로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서머셋 모옴은 자신의 소설읽기의 사례들도 예시한다. 끌리지는 「돈키호테」를 한번은 완전히 읽고 다음에는 군데군데 읽어야 할 작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인가. 얼마나 「돈키호테」 속에는 매우 따분하고 가소롭기까지 한 지루한 부분들이 산적한가. 그런 시간낭비처럼 쓸데 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돈키호테」가 위대한 작품이며, 또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소설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독자로서는 지루



서머셋 모옴의 肖像.

하게 느껴지는 순간의 그 모든 부분을 전부 읽지 않아도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해를 보기는 커녕 띄엄띄엄 읽는 것이 더욱 돈키호테의 모험과 대화들을 즐겁게 느껴지게 할 것이 분명하다—이것이 모옴의 주장인 것이다.

가장 길고 그러면서 가장 읽기 지루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서도 모옴의 표현은 알아둘 만하다.

“프루스트의 열광적 숭배자라면(나도 그중의 하나이지만) 이 작품을 한자도 빼지 않고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작가의 것을 재미있게 읽는 것보다 프루스트를 읽으면서 권태를 느끼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세번을 읽고 난 지금의 심정은 역시 이 작품은 장소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시대에 따라서 요약본으로 읽혀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앙드레 모로아가 그의 탁월한 평론 「마르셀 프루스트를 찾아서」 속에서 적은 것처럼 그 자신이 400페이지짜리 3권의 책으로 요약출판하고자 했던 의사는 옳은 것이다. 그리고 모로아의 말 <이 작품의 부분들을 적당히 편집한다면, 음악의 역할이나, 예술에 있어서의 새로움, 문체의 아름다움, 인간의 類型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것,

또는 醫學에 있어서의 嗅覺의 중요성들에 대해 몽테뉴식의 에세이集을 성공적으로 엮을 수도 있을 것이다>를 나는 확신한다.”

### ‘즐거움’으로서의 책읽기

이러한 읽기방법과 함께 서머셋 모옴의 소설읽기의 가치론 또한 경청할 만하다.

그는 우선 H.G.웰즈의 소설읽기 의미화에 동조를 표시한다. “내 생각으로는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사회의 변화·발전 속에서는 그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의 대부분을 서로 論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소설 이외에는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소설은 앞으로 사회에 대한 매개자, 이해의 전달자, 자기반성의 도구, 도덕을 새롭게 전시키고 풍속을 교환해 하는 일, 풍습을 새로 만드는 일, 법률이나 제도 및 정치·사회·종교문제들을 다루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머셋 모옴은 이것만으로는 프로퍼건더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즐거움으로서의 읽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즐거움이라는 것을 관능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해이다. 즐거움은 정신적인 것에 더 많으며 정신의 즐거움이 비록 육체의 즐거움보다 예리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보다 더 오래 간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이것이 모옴의 간결하고도 명료한 소설의 가치이며 소설읽기의 유효성이다.

그래서 그는 더 쉽게 그의 소설읽기 요령을 요약한다. 소설이 지식연기와 정신적 즐거움의 길로 가는 산책이라면, 그것을 먹기 쉽게 잘라 먹는 것은 곧 찜을 발라 먹는 것과는 같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1954년 「세계 10대 소설과 그 작가들」(The Ten Novels and Their Authors by Somerset Maugham)을 발표했다.

이 책에 선정된 10개의 작품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숙지돼 있으며, 또 다 譯刊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표현으로 이 10개의 소설을 쓰고 있는지 한 구절씩만 들여다 보자.

### 1 헨리 필딩 「톰 존스」

...세상에는 「톰 존스」를 읽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2백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이제는 흥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문체의 탓일까. 그러나 문체라면 필딩의 문체는 딱딱한 데가 없고 자연스럽다. 누군가 훌륭한 문체는 교양있는 사람의 화법을 닮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의 문체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몇명의 친구에게 말하듯 이야기한다. 단지 그는 완곡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다.

②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대개의 소설가는 때로 잘 쓸 때와 못 쓸 때를 갖게 되지만 오스틴은 평범한 것으로 써야 비로소 똑같은 높이가 꼭도 아니고 꼭도 아니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작가이다. …「오만과 편견」은 완벽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나를 유쾌하게 만든다. 이 유쾌함은 작품의 첫 줄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유지해갈 수 있는 유쾌함이다.

③ 스탕달 「赤과 黒」

「赤과 黒」에는 중대한 결함들이 너무나 많다. 神과 운명과 우연이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신비는 진실로 여겨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 訂正하는 것이 소설가의 임무이며 권리임에도 스탕달에게는 그 능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위대한 두 소설 중 「파르프의 僧院」 쪽이 기본종계 읽기에는 더 적절하다. 그러나 「파르프의 승원」의 주인공들에는 피가 통하지 않는 꼭꼭각시들만이 있다.

④ 발자크 「골리오 할아버지」

…발자크를 한권도 읽은 적이 없는 독자가

발자크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으며 이 작가가 주고 있는 것을 단권으로 가질 수 있는 작품이 「골리오 할아버지」이다. 발자크는 작품에 따라 이야기를 중단하고 줄거리와 관계없는 일들에 중언부언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러한 결점이 전혀 없다.

⑤ 찰스 디킨스 「데이빗 카퍼필드」

…키츠가 너무 일찍 죽고 워즈워드가 너무 오래 살았다는 것은 영국문학에 있어 불행이다. 이 불행에 못지 않은 또 하나의 불행이, 영국의 출판제도가 위대한 작가들이 그들의 능력을 보다 잘 발휘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작가들은 12회 내지 24회에 걸쳐서 分冊을 하도록 출판사에 의해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 분책은 독자가 그 다음을 사도록 끝맺음을 만들어야 했다. 그 결과는 군더더기·탈선 등의 소설을 조장했다. 「데이빗 카퍼필드」도 이 속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때로는 자유분방하며 때로는 요란하고 때로는 애처로운 작품이다.

⑥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

…플로베르는 그야말로 하찮은 일들을 차례로 얘기해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독자는 조금도 따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늘 빛인가 새것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 하찮은 일들이란 ‘엠마’가 한 일이든 느낀 것이든 모두 이데 없이 보잘 것 없기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따분하겠는가를 독자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⑦ 허만 멜빌 「모비 딕」

…소설은 지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읽어야

한다고 나는 몇번이나 거듭 말하고 싶다. 그러나 멜빌은 이데면 온 힘을 다해서 독자의 즐거움을 방해하려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독자는 읽는데 몰두하게 된다. 인물들은 모두 생생하고 사건은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어 독자의 흥분의 도를 가중시킨다. 클라이막스마다 강렬하게 극적이다. 그러나 멜빌은 공연히 이야기를 늦추고 흥미를 빼게 한다. 아마도 그는 지식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그 지식을 뽐내려는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모양이다.

⑧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소설이란 대개 그것이 나오던 시대의 일반적인 소설작법과 사고방식에 합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시대를 알 수 없게 만든다. …서툰 문장마저도 시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돕는다. 가령 그는 ‘편지를 읽는다’를 ‘서간을 열독한다’라고 쓴다. ‘방을 나간다’는 ‘방을 뒤에 한다’라고 쓰고 ‘매일 하는 일’을 ‘日日의 근무’라고 쓴다. 그러나 이러한 어색한 스타일이 그의 소설에서는 오히려 그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격한 정열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⑨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家の 兄弟들」

…사람은 자신 속에 누구도 二重性을 갖는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소설 주인공들에게 이것을 함께 주지 않고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따라서 그가 만든 인물들에는 복잡한 데가 없다. 지배하고 싶은 욕구의 인물과 지배받고 싶은 욕구의 인물이 따로 있고, 사랑의 인물과 악의 인물이 별도

로 있다. 이상할이만큼 인간의 특질이 없는 셈이다. 그러므로 아예 자존심이 없는 인물, 자제심이 없는 인물, 그리고 정열만 있는 인물들이 있을 뿐이다.

⑩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견해는 곧 전쟁이란 우연의 사정, 미지의 힘, 그릇된 판단, 뜻하지도 않았던 우연의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과학이란 있을 수가 없다.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도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偉인들이 아니라 제국민 사이에서 작용하는, 제국민이 모르는 이유에서의 승리 혹은 패배라는 정체불명의 의식과 힘일 뿐이다. 나폴레옹 역시 그가 이긴 것은 그가 이끈 대부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 적군이 단지 이 싸움은 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전쟁을 放棄했기 때문이다.

이 인용들은 보다시피 추천하는 소설의 의미에 대한 해설들이 아니다. 단지 보다 단편적인 소설의 인상이다. 그러나 이 인용들에 의해서만도 소설읽기의 관점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다양성에 의해 소설이란 결국 또박또박 읽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해안과 감각적인 정서적 선택에 의해 더 잘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점을 보이기 위해 인용이 장황해졌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더 인용해두어야 할 귀절들이 많다.

서머셋 모옴에 의해 추천된 이 낮은 소설들은, 그의 관점에 의해 다시 낮은 소설일 수도 있게 된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책

값 3,300 원



\*이 마크는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見)는 뜻입니다.

서울·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2 호  
☎ 739-2520, 738-7709



돌아오는 여행길은  
공허할 뿐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앨버트 크라스너 / 이준호 옮김

저마다 여행을 떠나지만  
돌아오는 길은 늘 공허할 뿐입니다.  
무릇 모든 여행은 나에게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 떠나지 않아도  
모든것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오늘 떠나도  
늦지 않습니다!